

보도시점 (전매체) 배포 즉시

정부는 '25년에도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 진출 및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집중 지원할 계획입니다.

1. 언론 보도내용

- 뉴스1은 「“티메프 불통”... 내년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예산 22% 뚝」 제하의 기사에서,
 - “내년 예산 축소 편성으로, 소상공인들은 온라인 시장 진출 기회가 줄어들게 생겼음을 우려한다”고 보도했습니다.

2. 보도 내용에 대한 설명

-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이 온라인 진출준비부터 도약(해외진출)까지 체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사업을 개편하였으며,
 -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시장 진출 기회가 줄어들지 않도록 관련 사업을 차질없이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.
- 아울러,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 외에도, 경쟁력을 갖춘 소상공인을 민간이 직접 발굴하고 온라인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'25년부터 신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.
 - 또한, 소상공인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·상담(컨설팅) 지원, 온라인 기반의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등 소상공인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성장을 위한 사업도 '25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.
- 중소벤처기업부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 역량을 강화하고 성장을 중단 없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.

담당 부서	소상공인정책실 디지털소상공인과	책임자	과 장	김민지 (044-204-7870)
		담당자	사무관	류민희 (044-204-7282)